

입학사정관 평가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성적 평가 모형 탐색

김 수 연 (Kim, Su-yhen) *

(E-mail : suyhen@hanmail.net)

김 시 라 (Kim, Cy-la) **

(E-mail : cyla@catholic.ac.kr)

논문접수일 : 2009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 : 2009년 5월 1일

게재확정일 : 2009년 5월 18일

* 학위취득대학 : 숙명여자대학교

현직: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연구실 연구실장

* 학위취득대학 : 연세대학교

현직: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연구실 전문연구위원

입학사정관 평가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성적 평가 모형 탐색

<국문요약>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위해 등장한 정책이 입학사정관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을 통한 전형의 목표는 기존의 전형요소로 활용된 수능성적이나 내신의 한계를 넘어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되어져서 학생들을 다면적,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영역은 현재 대학 입학에서 전형요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비교과영역은 대부분 계량화 하기 어려운 질적 자료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실적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양적 접근을 넘어서 학생의 정보적 특성과 의미를 고찰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내상이 89%, 교외상이 11%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이나, 실제 대학입학 전형 요소로써는 교외상만이 수상실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수상실적을 통해 학생의 재능과 열정, 기여도, 지속성, 리더십 등을 살필 수 있는 모든 정성적 내용이 수용 되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특별활동 영역의 의미도 살펴보았다. 정량화하기 위한 도구로 비교과 영역들이 활용되어진다면 수상실적등의 비교과 영역 반영을 최소화 하게 된다. 정성적이고 포괄적인 평가 방법을 이용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자료가 학생을 표현해주고 알려주는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을 때 입학사정관 제도는 의미 있는 제도로 정착 될 것이다.

[주제어] 입학사정관, 정성적 평가, 전형, 대입정책

I. 서론

교육 정책에 따라 대입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자율권 확대와 중등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4년 발표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서 고교교육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해석하고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입학사정관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에서(2007.10.9) 3단계 대입 자율화를 발표하며 중요 정책으로서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2007년 시범적으로 10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시범 실시되었으며, 2008년 신규 30개 대학이 선정되어 40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많은 신규 입학사정관이 임용되었으며, 2010 입시부터 입학사정관으로서 평가에 참여하여 정성적 평가를 시작하게 된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의 선발철학과 목표에 맞는 인재를 내용과 방법에 있어 기계적, 획일적 선발 방법이 아닌 종합적, 정성적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고교교육정상화와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위해 등장한 정책이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을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 학생의 잠재력 및 소질을 평가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남보우, 2008)로 정의하였다. 입학사정관은 학생과 학교, 지역, 대학의 특성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각 입학전형요소들의 내용과 질을 파악하고, 학생의 특성과 잠재력을 찾아내어 평가하는 입학전문가여야 한다. 입학사정관을 통한 전형의 목표는 기존의 전형요소로 활용된 수능성적이나 내신의 한계를 넘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되어져서 학생들을 다면적,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한 입학전형이 이루어진다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대학은

대학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우수 인재를 선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활동 결과를 기록하는 법정장부로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 자료이다(최현섭, 2005). 학교생활기록부는 과거의 생활기록부에 비해서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수량화에서 문장기술로 전환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술과 지향이 변화하였지만, 대학입학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수용되어 지지 못하였다. 수량적인 교과 성적 위주의 반영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부분의 보완으로 교육인적자원부(2004)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예고하게 된다. 입학사정관은 질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읽어내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평가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크게 교과영역과 비교과 영역으로 나뉘고, 비교과 영역은 수상실적,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으로 소 분류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비교과 영역에서는 교과영역에서 볼 수 없는 수상경력, 봉사경력, 동아리 활동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의 인성 및 특기, 관심사항 등을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자기 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장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영역은 현재 대학 입학에서 전형요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비교과영역은 출석이나 봉사시간과 같은 정량적 자료 이외에는 대학입학전형요소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량적 자료로서 비교과 영역 또한 수능능력시험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문희경, 2002). 그러나, 비교과 영역은 대부분 서술적으로 기록되며, 그 중

류와 기록의 대상 또한 다양하다. 비교과영역의 기록은 대부분 계량화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질적 자료이다.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은 객관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최현섭, 2005). 객관성이 떨어지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지적을 넘어설 만큼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다면적, 종합적 평가를 담아내는 타당한 자료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다양한 영역들은 한 학생을 다면적 측면에서 평가 분석하고 있다. 비교과 영역은 서로 관련되어져 있다. 수상실적은 학교생활의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UCC 동아리 대상'을 수상한 경우 동아리 활동 상황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된다. 교과에서의 성취상황이나 봉사활동, 출결 또한 교내 수상에 드러나 보이게 된다. 비교과의 내용 중 중심 활동으로서 교내 수상활동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실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내 수상이 교외 수상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빈도로 수여되고 있지만, 대학입학전형요소로서의 교내 수상경력은 그 활용도가 낮다. 본 연구에서는 교내 수상의 의미와 영역에 대한 질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교사 면담, 보고와 입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분석을 통한 비교과 영역의 교내 수상 영역의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성적 평가를 위한 입학사정관의 학교생활기록부 접근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 입학사정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고교교육의 내용과 질을 깊이 있게 읽고 질적 평가를 수행할 때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정착에 다가가게 될 것이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7, 2008학년도 K 대학교를 지원한 지원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자료제공을 동의한 28,15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학생의 특징을 양적, 질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고교 교사 100인을 대상으로 한 각 학교별 비교과 영역 보고서와 직접 면담을 통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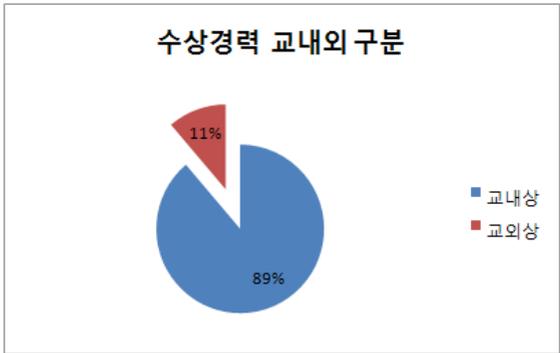
학교생활기록부는 1.인적사항, 2.학적사항, 3.출결상황, 4.수상경력, 5.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6.진로지도상황, 7.창의적 재량활동상황, 8.특별활동상황, 9.교외체험학습상황, 10.교과학습발달상황, 11.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의 태도와 발달, 재능, 노력,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성된 모든 영역들이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 근간이 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상경력과 특별활동상황을 중심으로 비교과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중 수상과 특별활동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다면적 정보의 의미를 고찰하고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 구성에 대한 질적 접근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수상경력

1) 현행 대입제도에서 수상경력의 반영

수상이란 각종 교내외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에 대한 포상을 의미하며, 수상경력은 고교교육 과정의 산출물 중 하나이다. 실제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상을 반영한 대학은 국공립 34개 대학 중 1개 대학, 사립대 160개 대학 중 3개 대학, 교육대 11개 대학 중 5개 대학에 그쳤다. 그 반영비율도 5% 미만으로 미미한

편이었으며, 수상경력 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대학관계자들의 의견도 극히 적었다. 수상경력에 관해서는 교사와 대학관계자 모두 '교육부나 교육청, 대학에서 인정해주는 기관 및 단체의 수상 내용만 기록'할 것(교사- 47.2%, 대학관계자- 66.3%)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상한 내용만 기록'할 것(교사- 37.7%, 대학관계자- 66.23%)을 가장 많이 제안하였다(최현섭, 2005). 대학이나 교사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여하는 수상 경력만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대학관계자들은 수상경력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외부기관 수상만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8,152명 중 수상 내용이 있는 수상자 수는 22,946명이었으며, 전체 수상 개수는 125,869개였으며, 1인당 평균 수상 개수는 5.49개였다. 이 중 교내상은 111,743개였으며, 교외상은 14,126개였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내상이 89%, 교외상이 11%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이나, 실제 대학입학 전형 요소로써는 교외 상만이 수상실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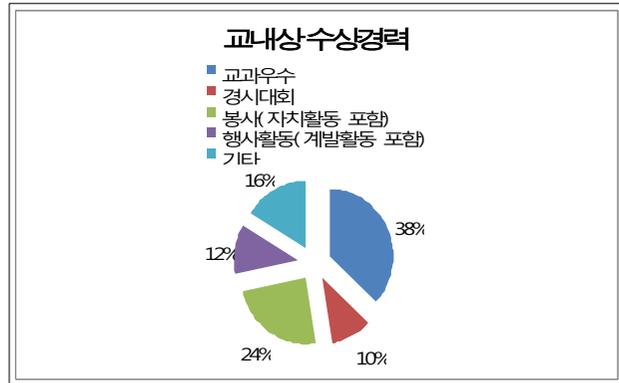


[그림 1] 전체 수상경력의 교내상과 교외상 비율

하지만 학생들의 성장과 관심사, 그 동안의 교육 내용과 교육에서 본인의 성취를 보여주는 영역으로 교내 수상실적은 귀한 자료이다. 수상실적을 통해 학생의 재능과 열정, 기여도, 지속성, 리더십 등이 보여진다고 판단되면, 이를 입학전형에서 충분히 활용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떤 상을 받으면 10점, 어떤 상은 5점 이런 식의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학생 개인의 성장과정과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수상실적은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모형 접근으로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의 교내 수상 내용 분석을 통해 수상이해 모형을 구성하고 교사의 직·간접 면담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상경력의 내용이해를 위한 모형 구성

교내 수상경력에서 교과영역 관련 수상은 교과우수와 경시대회 관련 수상을 합쳐서 48%에 이른다. 교내상을 분석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체 수상 경력을 분석하고 유목화 하였다. 수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목화 작업이 필요하였다. 전체 수상경력에서 89%에 이르는 교내 상 중 48%(53,123개)가 교과와 관련된 수상이었고, 그 외의 수상은 자치활동 24%(27,112개), 행사활동 12%(13,123개), 기타 16%(18,385개) 등의 순이었다.



[그림 2] 교내상 수상 영역 비율

이 중 교과영역 관련 수상경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활동이 차지하는 절대적 위치를 감안할 때 큰 의미를 지닌다. 모든 교과에 우수하진 않더라도 관심을 가진 영역의 재능과 노력이 드러나는 곳이 교과 관련 수상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위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교과우수상을 각 과목마다 3% 이내 또는 1등급 정도의 기준을 두고 수상하고 있다. 고교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 상의 의미를 재차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교과우수상의 경우 중간, 기말, 수행평가 점수를 합산한 한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수상한다. 대개의 학교는 각 과목 우수자의 5%이내에서 수상하고 있다. 단위학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3% 이내만 수상하나, 어떤 학교의 경우는 그보다 더욱 작은 각 과목 2명의 학생만 수상한다. 동점자가 있을 때도 학교별 동점자처리기준에 의해 퍼센트를 맞춘다. 받을 학생들이 받는 상이고, 노력한 대가로 받는 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상이다.’

교과영역과 관련된 또 다른 형태의 수상으로 경시대회 우수상이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배우는 교과목인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교과 내용에 대한 학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학력경시대회를 국어경시대회,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라 한다. 이러한 학력경시대회를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올림피아드(Olympiad)’라 한다. 교내에서 열리는 경시대회는 1998년 말 당시 중학교 3학년들이 대학진학 시 시행예정으로 마련된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교육부,1998)’마련을 계기로 교외에서의 경시대회에 대한 관심이 조성된 것과 발맞춰, 교내에서도 학교장 주최의 경시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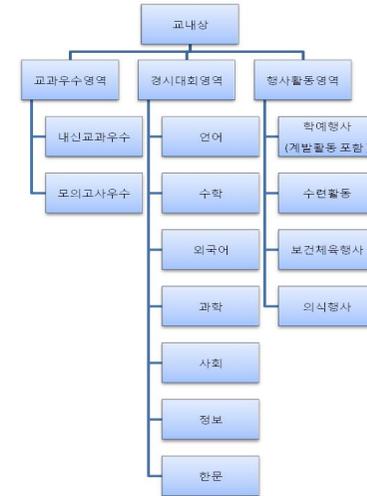
교내 경시대회에서 받은 수상경력은 학생의 관심과 능력을 반영하는 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교내 경시대회 수상 경력은 대학 입학전형요소로 점수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의 특성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전형에서 교외 경시대회 수상 경력이 고려되고 있으며, 수상경력으로 인정 받고 있다. 실제, 교외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수상을 하는 학생이라면 그 영역에서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분석에 의하면 전체 수상 경력 중 교외 경시대회에 수상은 전체 수상의 1.8%에 불과하다.

고교 교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교내에서 수상되는 교과 우수상이나 경시대회 우수상은 모두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교과 영역과 관련된 상이지만, 교과 우수상은 수동적으로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야만 되는 상인 반면, 경시대회 우수상은 참가대상과 인원 제한이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상의 성격이 짙으며, 외부 경시대회를 나가기 위한 예선대회의 성격을 지닌다.

<표 1> 교내 수상 영역 하위구성의 기술적 통계

수상항목	학력평가	개수	학교수
교과우수	연합평가	29,944	668
	학력경시	7203	410
	모의고사	4290	308
	교과우수 소개	41,437	
경시대회	언어	1,565	478
	수학	1,899	527
	과학	4,418	776
	정보	688	303
	외국어	2,703	644
	사회	210	74
	한문	203	85
	경시대회 소개	11,686	
봉사, 자치활동	봉사상	8925	672
	선행, 효행	12601	974
	공로상	1762	143
행사활동	표창장	3824	207
	행사활동 소개	27,112	
	학예행사(계발활동 포함)	7,051	980
	수련활동	1,332	270
	보건체육	1,691	252
	의식행사	3,049	717
	행사활동 소개	13,123	

각 수상의 영역 분석을 통해 구성된 교내 수상 영역 하위 구성의 기술통계는 <표1>에, 수상 영역 모형은 [그림3]에 제시한다. 이러한 수상영역 모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교과관련 수상 경력 외의 수상경력의 의미는 다음의 특별활동 영역과 관련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그림 3] 교내 수상 영역 모형

2.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편제에서 교과활동은 수단적 목표에 결부되는 것임에 반하여 특별활동 영역은 자기실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격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 활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전인적 인간형성은 교과활동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교과활동의 대부분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으로 지식은 전인적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한 가지 측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교과활동을 통한 인간형성은 객관적인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지식인, 교양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치기 쉽다. 이런 관점에서 교과활동과 더불어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은 활동리더, 내용, 장소, 시기, 집단 등의 운영 관련 요인을 다중 차원으로 조합, 연관시켜 종전의 평면적인 운영을 보다 입체적인 복합 운영으로 다양화, 개성화, 특성화 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별활동의 교육내용은 특별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중심으로 다섯 영역으로 구별된다(유광찬, 2001).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의 다섯 영역의 특별활동 교육목표는 다음 <표2>와 같다.

<표 2> 특별활동 구성 영역의 교육목표

영역	교육목표
자치활동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 수행하고,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지닌다
적응활동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한다
계발활동	계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를 배우고, 협동심을 기르며,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 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봉사활동	봉사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
행사활동	각종 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가진다

이 중 기존의 대입 전형에서 활용된 영역은 자치활동, 봉사활동 영역 정도이다. 자치활동 상황에서는 학생회장, 학생회임원, 학급회

장 등의 활동이 기록되고, 이는 리더십 전형 등에서 임원활동이 점수화 되어 반영되고 있다. 또한 봉사활동 상황에서는 봉사 시간의 시간 수를 합산하여 전형의 요소로 반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봉사활동은 매년 교내 봉사활동시간 30시간을 채우기 위해 학교 주위 탄전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는 교육내용으로서의 봉사의 의미보다는 봉사의 시간 즉, 봉사의 양을 채우기에 급급하게 만든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봉사활동은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운영되고, 솔선수범하거나 꾸준한 활동을 하는 학생을 지지하고 본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봉사활동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가 가능하여 이를 입학전형요소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의 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시민과 사회의 일원으로 준비하고 봉사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특징이 기록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교 교사가 추천하는 봉사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 시에 봉사활동에 솔선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학급학생들에게 태안에 자원봉사를 제안하였습니다. 7명의 학생들이 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학생들 스스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봉사의 시작과 참여과정, 결과까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활동이다. 이러한 봉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회적 관심사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지니기 보다는 적극적, 능동적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참여하는 태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내고 참여하는 적극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이 단순히 한 건의 봉사활동에서만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아닌지는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타 영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치활동, 계발활동, 행사활동 등에서도 학급,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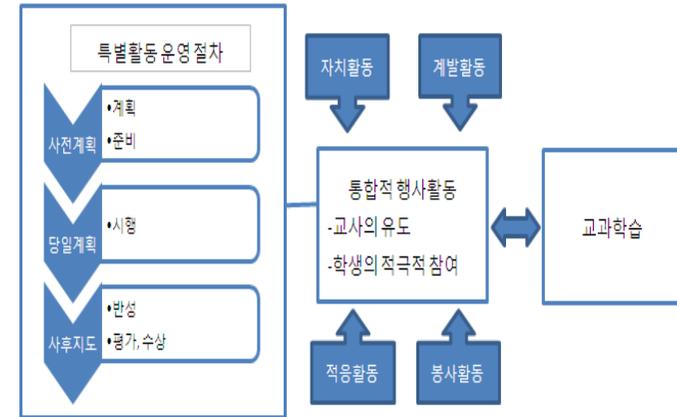
교 등 필요한 영역에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 학생들은 평가를 위한 상황모면적 행위가 아닌 본인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봉사과 관련된 봉사상은 제대로 봉사상이 수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범이 되는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면담한 고교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모범상, 봉사상 등이 흔히 불리는 수상 명칭이다. 각 분기별 또는 학기별 모범학생 및 봉사학생을 뽑아 수상 대상에 넣어야 하는데, 이때 반장이나 부반장 등 학급 간부들이 우선 대상에 오르게 된다. 더욱 심한 경우는 교외에서 모범학생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진정한 모범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없이 성적이 우수하다거나 학생회 간부를 한다거나 하는 학생을 추천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

다음으로 살펴본 특별활동상황의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행사활동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 영역의 연계성은 행사활동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행사활동이라 하면, 흔히 학교 전체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의식행사활동’, 예를 들어 입학식, 졸업식 등만을 염두해 두고 학교교육과정의 운영과는 별개의 활동으로 생각하여 소홀히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과 학습이 개념이나 원리에 바탕을 두고 학문적·인지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것이라면, 행사활동은 실제문제·현실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찾아내고 평소의 학습 성과를 행사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 평소에 달성할 수 없는 학교교육 목표를 행사활동을 통하여 접할 수도 있다. 학예행사활동의 일환인 ‘발명품 만들기 대회’를 통해 교과 학습으로 터득한 학문적 원리를 이용하여 직접 실험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창의적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행사활동 중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치활동

등의 기초적 내용이나 적응활동 및 계발활동, 봉사활동의 요소들을 행사활동으로 용해, 흡수시켜 통합된 하나의 과정으로 일원화하여 지도해야 한다. 결국 행사활동은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자치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각 활동 간의 관계와 참여 모형을 설정하여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4] 특별 활동 영역간의 상호 관계

행사활동은 그 내용과 형식이 교과 및 특별활동의 타 영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교육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한글날은 의식행사로 구분하여 학교 내 행사 실시를 가급적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때 학교에서는 한글날 관련 백일장이라던가 교내표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행사의 목적과 취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평가 결과로 수상을 하고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월별 의식행사활동명과 내용, 행사에 따른 수상경

력을 <표3>에 나타낸다.

<표 3> 행사활동과 관련된 수상 예시 1

월	활동	내용	수상 예
3	3·1절 시업식	의식행사 의식행사	
4	식목일 보건의 날 과학의 날	관련행사 관련행사 조회행사	식목일 기념 글짓기 보건의 날 기념 건강글짓기대회 과학의 날 상상글짓기 대회
5	스승의 날	조회행사	스승의 날 기념 표어대회
6	환경의 날 현충일	관련행사 의식행사	환경의 날 기념 모형 항공기 대회 통일안보관 확립을 위한 나의주장 발표
10	한글날	의식행사	한글날 기념 교내 백일장 및 표어 공모전
11	학생의 날 순국 선열의 날	조회행사 조회행사	학생의 날 기념 모범학생 표창

다음은 학예행사활동과 보건체육행사활동, 수련활동, 안전구호활동에 속하는 행사명과 내용, 각 행사에 따른 수상경력을 <표4>에 제시하였다.

<표 4> 행사활동과 관련된 수상 예시 2

소영역	활동	내용	수상 예
학예 행사 활동	전시회	방학과제물 전시회 미술전시회	여름방학 과제물 경시대회 예절포스터 전시회
	발표회 학예회	나의주장발표회 음악활동발표회 계발활동 발표회	자기주장 발표대회 밝고 맑은 노래부르기 대회 계발활동 발표회 공연부문
	경연대회	합창대회 사생대회	교내 합창대회 사생대회
보건 체육 활동	체육대회	건강 달리기 대회 학급 대항 친선경기 대회	교내 건강달리기대회 여자부 교내 체육대회 1000m 부문
수련 활동	수학여행	견학활동	수학여행 소감문 쓰기 대회
안전구호 활동	안전생활 훈련	교통안전 캠페인	안전사고 예방작품 공모전

이 외에도 각 학교들은 학교별로 행사를 지정하고 개별행사를 열어 우수한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학교는 진로의 날을 4월에 행사활동으로 지정하고, 명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은 후 이를 감상문 형태로 제출하게 하는 과제를 내어 우수자에게 수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는 교사들의 관찰 평가가 축적되어 학생들을 계속 격려하고 북돋우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상이라고 하는 산출물을 파생할 수 있다.

각 행사활동은 각종 활동과 대회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각 행사마다 참여하여 본인의 재량과 노력을 빛내고 자신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사의 참여와 학생의 재량은 수상경

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상 경력 중 12%는 이러한 행사관련 수상이며 교내 교외에서 함께 이루어 지고 있다. 경기북부예술제나 동아리 축제 경연대회, 문화관광부 경연대회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외 수상 실적으로 외부 행사 참여를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관심과 적극성 참여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사 활동의 참여는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표현해주는 내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의 의미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수상경력과 특별활동 영역의 관계를 중심으로 의미를 살펴 보았다. 정량화하기 위한 도구로 비교과 영역들이 활용되어진다면 어떤 학생의 활동은 점수화 해주고 어떤 학생의 활동은 점수화 하지 않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 수상실적등의 비교과 영역 반영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정성적이고 포괄적인 평가 방법을 이용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자료가 학생을 표현해주고 알려주는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고 활용될 때, 입학전형요소로서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IV. 제언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8)는 2010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대학 학생선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성적 위주의 전형을 지양함으로써 수험생의 특기적성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종합적 정성적 접근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렇게 필수적인 영역이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에서도 온정주의로 인한 평가 및 기재로 타당성과 신뢰성 저하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 되고 있다. 비교과 영역에서도 봉사활동기록의 신빙성 부족, 수상 남발, 담임의 호의적 종합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 반영률을 낮추었으며, 고교에서의 학생부 기록은 형식적으로 행해진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최현섭(2005)에서 교사들의 50.6%가 공교육 신뢰를 위해 누가 기록 또는 정성평가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교사들이 이러한 의지를 밝혔지만, 비교과영역을 통해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의 의지가 별로 없다고 이 연구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제 40여개 이상의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려 하고 있다.

대학에 따라, 관련 전공에 따라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모습은 다양해진다. 어떤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하나로 일원화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배경과 환경, 적성을 가진 학생이 존재한다. 이제 수능성적이라는 하나의 단일 차원을 넘어서서, 고등학교 3년의 생활이 담긴 학교생활기록부를 포함하는 다 차원의 정보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시도하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 되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다면적 요소들의 정성적 평가를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탐색하고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다면적 요소의 중요영역을 제공해주는 학교생활기록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생활기록부는 3년에 걸친 학생의 학교생활을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 의해 쓰여 지는 가치 있는 자료이다.

교육인적자원부(2004)는 현장교사의 학생평가 기록이 대학에서 전형자료로서 중요하게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여러 줄 세우기에 의한 우수학생 개념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었다. 점수를 내기 위한 도구로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 기록을 살펴보려는 의도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과 부풀리기에 대한 비판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읽어 나가려는 의도보다는 점수로 양화 시키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대학입

학에서 다양한 학생의 성장 기록을 원하고 성장 기록의 의미가 반영된다면, 대학은 다면적 평가를 통해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되고 일선 고등학교는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는 교육이 아닌,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권승아(2009)에 의하면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평가와 선발, 교육과 관련된 사회문제해결, 입학전문가로서의 역할, 학생선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하면서 입학사정관으로서 보람을 가진다고 보고한다. 입학사정관인 본 연구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의 현재의 모습을 읽고 미래의 성장을 연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충실히 기록되어야 한다. 현재보다는 보다 풍부한 정보를 담기 위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저야만 한다. 부풀리기 위한 정보를 담기보다는 학생의 학교생활 속에서 성취와 성장을 담을 수 있도록 구성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상의 부정확한 기록이나 정보의 부재는 추가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행사관련 정보 등 학생의 학교생활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들이 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생의 정보를 연결해 보곤 한다. 보다 다양한 학생의 정보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충실성이 고려되고, 교육의 연계선상에서 가치 있는 자료로 대학교육에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내 상을 중심으로 수상영역 모형을 구성하였다. 교내상의 유목화 항목은 교외 상에도 동일하게 수용되어진다. 우리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각 상이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의 어떠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학교 현장에서 가지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할 것이다. 정성적 평가를 위한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봉사, 동아리 관련 후속 연구 또한 진행 되어져야 한다.

고교 교사들의 합의에 의한 교내 수상이라면 교사추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봉사 정신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상된 교

내 봉사상은 고교 교사의 추천으로 인한 수상인 것이다. 올바른 교내 수상 문화의 정착은 교사 추천의 의미로서 수상의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추천서와 관련된 후속연구에서 추천의 의미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을 입학사정관으로서 탐색하여 나갈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시작으로 다양한 학생 정보를 분석, 종합하는 정성적 평가라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으로 도약하는 중심에서 전문성 있는 입학사정관의 역할을 위해 준비해 갈 것이다.

< 참고문헌 >

-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생활기록부 우수기재 매뉴얼(비교과 영역 중심)』
- 권승아, 2009,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 실태와 입학사정관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남·손종현·김부태, 2004, 『학교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교육 이력철 도입활용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양성관·김경범, 2008,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침서 개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유광찬, 2001,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교육과학사.
- 정일환, 2008, 『입학사정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탐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최현섭, 2005,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신뢰 제고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5-지정-48.
- 한국교육개발원, 2005,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학 적격자 선발을 위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활용 개선방안 모색』, 제29차 교육정책 포럼 자료집.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3, 『경시대회 현황 통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RM 제2003-12-260.

Developing a More Comprehensive Student Evaluation Process for College Admission

Kim, Su-yhen
(Catholic University)
Kim, Cy-la
(Catholic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and its reliance on standardized test scores. Instead,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should consider a synthesis of standardized testing, such as the SAT and high school GPA, and student abilities demonstrated in addition to these standard measures. For a long time now, the high school GPA and SAT scores of student have been used as the primary tool to determine which high school students are admitted to college. But special activities and community outreach by the student have not been adequately included in admission decisions because they involve qualitative data that is hard to evaluate. This study seeks to broaden the debate about the attributes of candidates for college admission and offer tools that admission officers can use in the admission process to assess those attributes.

First, leadership skills, persistence, talent, and passion for learning should be included in admission evaluations of students. Also special activities within the school curriculum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If data is collected from school

records on admission decisions and evaluated, a more meaningful college admission system can be developed.

Key words : Admission officer system, School records,
Admission decision